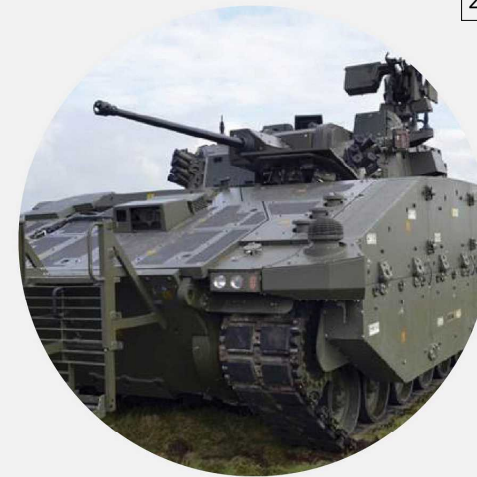


GLOBAL DEFENSE NEWS



기 동	베트남, 능동방호장비를 장착한 T-90계열 전차 영상 공개
감시·정찰	호주 해군, Warramunga 호위함에 신형 마스트 장착
함 정	일본, F-35B 전투기 운용 지원을 위한 이즈모급 함정 재의장 시작
항 공	미 해병대, CH-53K 해상 시험 실시

전재·인용 시 출처(국방기술품질원)를
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국방기술품질원은 <Global Defense News>, <국방과학기술정보>誌로 전 세계 국방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합니다.

● 인터넷망

<http://www.dtaq.re.kr/ko/doc/technical.jsp>

● 국방망

<http://www.dtaq.mnd.mil/ko/doc/technical.jsp>

기동

베트남, 능동방호장비를 장착한 T-90계열 전차 영상 공개

■ 베트남 군이 최근 러시아로부터 조달한 T-90S/SK 주력 전차를 보여주는 영상이 베트남 국방 TV채널(QPVN)에 의해 5월 12일 온라인 상에 공개됨.

- 2016년 러시아와 베트남 간의 계약을 따라 2019년 3월 러시아로부터 베트남에 인도되었던 T-90S/SK 전차 64대 중 일부
- 공개된 T-90S/SK 전차의 영상을 통해 쉬토라(Shtora)-1 능동방호체계(APS)를 탑재하고 있음이 식별
- 신형 전차의 상단 마운트에는 기존 베트남군 편제화기인 NSVT 12.7mm 중기관총이 아닌 Kord 12.7mm 중기관총이 식별되며, 콘택트(Kontakt)-5 반응 장갑을 장착

■ 쉬토라1 계열 능동방호장비의 주요 기능/성능은 다음과 같음.

- 광범위한 종류의 대전차 유도무기(ATGW) 대응을 목적으로 설계
- 포탑 주위로 배열된 4개의 레이저 수신기를 활용하여 반 능동형 레이저 유도 미사일 체계에 사용되는 지시기의 노출 특성을 탐지
- 주요 위협 탐지 시 포탑은 해당 방향으로 자동 회전하고 연막탄을 발사하여 해당 부위를 차장함으로 전차의 생존성을 증대
- 추적 유도 시 미사일 후방에 위치한 적외선 비컨을 사용하는 부류의 대전차 유도무기도 대응이 가능



능동방호체계인 쉬토라-1을 탑재한 T-90S/SK 전차의 동영상

감시정찰

호주 해군, Warramunga 호위함에 신형 마스트 장착

■ 호주 해군이 AMCAP 사업의 일환으로 Anzac급 호위함인 HMAS Warramunga함에 신형 마스트를 장착함.

※ AMCAP : Anzac Midlife Capability Assurance Program

- 기존의 CEAFA1-S 및 1-X PAR과 더불어 CEAFA1-L 능동위상배열 레이더 및 개선된 피아식별(IFF) 제공
 - ↳ 신형 마스트는 BAE Systems사가 설계 및 제작
 - ↳ 호주 해군은 감시 레이더는 함정의 필수적인 능력요소로 최신 기술의 체계 적용 필요성을 강조

■ 호주 해군은 군함자산관리협정에 따라 AMCAP 사업 지속 추진 예정임.

- AMCAP 사업은 2016년 4월에 20억 AUD(13억 8,000만 USD) 규모로 체결하여 추진 중
- 노후화된 장거리 공중감시 레이더 교체 및 신형 마스트 도입 예정
- 엔진, 추진계통 등의 개선 및 LESCUT, AN/SLQ-25C 어뢰 자체방어체계에 대한 성능개량 또한 사업 범위에 포함



HMAS Warramunga 호위함(Azac급)

GLOBAL DEFENSE NEWS

함정

일본, F-35B 전투기 운용 지원을 위한 이즈모급 함정 재의장 시작

■ 일본 해상자위대(JMSDF)가 최근 이즈모(Izumo)급 헬기모함 2척 중 첫 번째 함정을 항공모함으로 전환 시작함.

※ JMSDF : Japan Maritime Self-Defense Force

- 단거리수직이착륙(STOVL) F-35B 라이트닝 II 합동타격전투기 운용 지원 예정

↳ 최초 개조작업은 이번 회계연도 재의장 기간 중 진행되며, 마지막 개조작업은 2025 회계연도의 종합정비 기간 중 이루어질 예정

※ STOVL : Short take-off and vertical landing

■ 재의장된 이즈모급 함정은 일본의 공중작전능력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됨- 길이 248m, 배수량 24,000톤의 이즈모급 함정은 F-35B 전투기 중량이 고려되어 건조

↳ 수직이착륙을 위한 열을 견딜 수 있는 갑판 지점 장착 등의 추가적인 개조작업 필요

- 공군기지 숫자가 제한된 일본의 태평양 방면 작전능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

↳ 동급의 두 번째 함정인 JS Kaga 함의 경우, 2022 회계연도에 개조작업을 마칠 예정

↳ 일본은 중기방위계획에서 향후 5년간 재래식 이착륙 F-35A 전투기 27대와 함께

단거리수직이착륙 전투기 18대를 획득할 계획



일본 해상자위대 헬기모함인 JS 이즈모함

GLOBAL DEFENSE NEWS

항공

미 해병대, CH-53K 해상 시험 실시

■ 미 해병대는 시콜스키(Sikorsky)사의 CH-53K 킹 스텔리언 대형수송헬기에 대한 첫 번째 해상 시험을 실시함.

- 6월 초, 대서양에서 2주 동안 실시하였으며 9개의 갑판 장소에서 364회의 이착륙 진행
- 시험은 LHD 상륙돌격함정인 USS 와스프(Wasp)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, 해상에서 헬기에 대한 성능을 평가
- 이번 시험에는 발사 및 복귀, 로터 시동 및 중지, 함정 탑재 호환성 시험이 포함되어 있으며, 풍속 및 풍향이 변화하는 가운데 실시
 - ↳ 함정 급유 및 외부 전력계통과의 인터페이스 시험 포함
- 정비활동을 포함함으로써 함정 갑판 및 격납고 주변 필요한 모든 위치에서 헬기를 정비할 수 있도록 보장

■ CH-53K 헬기는 2021년에 최초운용시험 및 평가(IOT&E)를 실시하고, 2023-24년 사이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됨.

- CH-53K 헬기의 주 로터 및 꼬리 파일론은 미 해군 함정의 갑판 주기장소 및 격납고에 맞게 자동적으로 접고, 펼칠 수 있도록 설계

※ IOT&E : Initial Operation Test and Evaluation



CH-53K 킹 스텔리언 대형수송헬기

GLOBAL DEFENSE NEWS